

죽산 스님 관음종 종정 취임



관음종 종정으로 재추대된 죽산 스님이 3월 6일 취임법회에서 법어하고 있다.

관음종(총무원장 흥파)은 3월 6일 서울 묘각사 대불보전에서 죽산 스님 종정 취임식을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 등 각 종단 수장들과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제2차관, 청와대 불자회 강윤구 회장(사회정책수석비서관)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법회에서 관음종 제7세 종정으로 재취임한 죽산 스님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며 "마음을 부질없이 과거법에 취하지 말고 미래세 또한 탐착하지 말자"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축사를 통해 "스승의 마음을 밝히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정토"라며 "죽산 스님의 취임을 계기로 관음종 전 종도가 관세음보살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관음종은 죽산 대중스님을 정점으로 상구보리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해 사회를 위한 종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 관음종 제7세 종정으로 재추대된 죽산 스님은 1958년 통도사 월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범어사 자운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묘각사 흥선 스님에게 보살계를 각각 수계 받았다.

김진성 기자

“경제난 극복에 불교 나섰다”

종단협 국난극복 순회법회 봉행



1998년 열린 '국난극복 순회법회' 중 목포 보현정사에서 봉행된 '지역화합기원철야 3000여 법회'. 현대불교 자료사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IMF국제금융사태 당시 경제난 당시 보다 훨씬 더 힘들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이때, 불교계가 경제 위기 극복에 마음을 모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종단협)는 3월 18일 '경제난 극복과 국민화합 기원 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종단협이 IMF관리체제 당시인 1998년 4월부터 11월까지 봉행한 '국난극복 순회법회' 이후 치르는 대규모 법회라는 점,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당시 경제적 상황과 비슷한 난국이라는 점 등에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1998년 당시 순회법회는 서울 대전 부산 목포 등 전국을 돌며 진행한 지속적인 정진으로 국민의 지 결집에 크게 이바지 했다고 평가됐다. 팔만대장경을 조성해 외침을 막고, 승·의병으로 나서 나라를 지켜온 '후국불교'의 전통을 계승·실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종단협은 이번 법회 역시 △경

제난에 따른 사회적 고통 해소 △불자 의지를 모아 경제회복 및 선진경제 발전 기원 △세계간 상상과 화합 분위기 조성 △부처님오신날 봉축 등을 취지로 봉행할 예정이다. 법회에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27개 종단 총무

(총리)원장은 물론 불교계·정부 주요인사, 외교사절, 사회각계 초청인사 등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초청됐다.

종단협 사무총장 흥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은 "이번 법회에서는 세계적 금융난 때문에 더욱 어

려워진 우리나라의 현실을 부처님 법으로 극복하기 위한 자리"라며 "불교계가 한마음으로 발원해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발원할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yeam@buddhapia.com

진각종 사무 감사 실시

부산교구청으로 시작

진각종(총리원장 회정)은 3월 10~26일 2009년도 사무감사·지도 실시한다.

총리원과 사감원(원장 효윤)이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무감사에서는 3월 10일 부산교구청을 시작으로 유지재단과 통리원, 교육원(이상 25일) 등 중앙종무기관을 비롯한 7개 교구청별 심인당, 종립유치원 등이 사무지도도 받게 된다.

사감원장 효은 정사는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 중앙종무기관과 심인당, 유치원 등의 예산편성·집행의 효율성을 살펴볼 예정"이라며 "심인당 운영 및 포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며, 지방 교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단양노인전문요양원

'행복동' 개원

천태종복지재단(이사장 정산·총무원장 흥파)은 2월 25일 노인전문요양원 '행복동(원장 일화)'을 개원했다.

개원식에서 정산 스님은 "나눔이라는 자비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주춧돌을 놓게 됐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양원 직원은 물론 단양군민과 자원봉사자 모두가 힘을 모아 행복동의 발전을 이룩하자"고 강조했다.

단양을 상진리에 위치한 단양 노인전문요양원 행복동은 단양군이 10억9600만원을 투자해 2007년 12월 착공, 지난해 12월 완공됐으며 연면적 801.36㎡,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를 갖췄다.

행복동은 앞으로 3년간 천태종복지재단이 위탁운영을 맡게 되며, 전문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랩실과 물리치료실, 요양실, 자원봉사실, 집단치료실, 식당 등이 갖춰져 있다. 요양실은 4인용 8실과 2인용 1실 등 9실로 34명의 어르신을 수용할 수 있으며, 노인전문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 14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어나 기자

(재)대한불교일부선교종 임원진 취임

총무원장 회암 스님·중앙총회회장 경원 스님

(재)대한불교일부선교종은 3월 5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총무원장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봉해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번 법회에서는 회암 스님(사진 왼쪽)이 제8대 총무원장에 취임했다.



스님은 전법도생(傳法度生)을 위해 △한 단계 도약하는 총무원 운영 △장기 포교계획 수립 △일부선교종 기법관 건립 추진 △종도 화합의 기틀 마련 △국제불교문화교류 활성화 등을 핵심 사업으로 발표했다.

이날 법회에서 봉해 종정스님은 법어를 통해 "나 자신의 원을 크게 그려서 그것을 믿고 깨달음의 길로 정진해 가자"며 "종도의 협력이 없는 종단 발전은 불가능한 만큼 한마음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회암 스님도 취임사를 통해 "일부선교종의 유지가 실현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대한불교일부선교종은 18일 정오 서울 캄스호텔에서 제33차 임시 중앙총회를 갖고, 제7대 중앙총회회장을 경원 스님(사진 오른쪽) 취임식을 진행한다. 제30차 중앙총회에서 중앙총회 의장에 선출된 경원 스님은 1974년 서광사에서 봉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중앙총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02)998-8161

김진성 기자

태고종 약사암 인근 '황금소나무' 최초 발견

충남 보령시 삼시도

태고종 충남 보령 약사암(주지 진관) 근처에서 황금소나무가 최초로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황금소나무는 높이 15m, 가지 넓이 10m, 둘레 25cm인 50~60년생으로 약사암 인근 삼시도 언덕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형순 박사(특용수과)는 "지금까지의 황금소나무는 가지 한 쪽의 변이를 통해 증식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술잎 모두가 황금색인 곱술은 이번이 처음이며, 현재 후천성 및 토양연관 여부 등 유전형질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금소나무를 발견, 산림청에 문의한 진관 스님은 "20여 년 전부터 황금소나무의 존재를 알고, 자연적으로 발견된 신기한 형상에 부처님이 성화했던 불국토"라며 "황금소나무 존재했던 황금소나무가 이번 계기로



태고종 약사암 인근에서 국내 최초로 발견된 황금소나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현재 겪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부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삼시도는 인근에 부처님 어머니 섬인 불모도(佛母島)가 있고 예전부터 불교가 성황했던 불국토"라며 "황금소나무는 태안 기림유출, 송례문 화재 등

국가적 어려움이 생기기 보름 전 밤을 흘리며 나라를 걱정하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진관 스님은 이번 산림과학원 조사를 계기로 보령시 측에 황금소나무 주변 정각과 단(壇) 등의 설치를 건의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김진성 기자

진각대학원·교육원

각 과정 졸업·수료식

진각종 도제양성교육기관 진각대학원(학장 경정·교육원장)은 3월 13일 오전 11시 총인원 대회의실에서 '2008 진각대학 졸업식'을 봉행한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선운 정사실 각심인당 주교를 포함한 정사·전수·처주 등 12명이 졸업한다.

졸업식 후에는 교화스승교육과 정인 교육원 제6기 교학과정과 제9기 심학과정 수료식도 함께 봉행된다.

수료식에서는 효심 정사(행원심인당 주교) 등 7명이 심학과정, 승진해 전수(선정심인당 교화) 등 11명이 교학과정 수료증을 각각 받는다.

한편, 진각대학은 2007년 8월 법규를 개정, 명칭을 변경하고 2008년 첫 입학생부터 진각대학원으로 신입생을 받고 있다.

김진성 기자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섬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육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제, 백일제 기도, 영가 천도제,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이제 사찰도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다!

현존 대부분의 사찰은 전통적인 목조건물로 축조되어 있고, 초·향·장작등에 노출되어 있어 항상 화재 위험이 상존합니다. 또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는 관계로 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가 어려워 막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비단 화재 뿐만 아니라 사찰을 운영하며 교화표교활동을 벌이다 보면 온갖 사고와 자연재해, 신도들의 인적 물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찰도 합리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 사찰 종합 보험 상품 안내

구분	화재	화재	상해
기본 담보	화재손해	시설소유 배상책임	24시간 상해
선택 담보	구내폭발손해 풍수재해손해 지진손해 악의적인 파괴행위 손해 협정보험가액	물질손해확장담보 구내치료비 주차장배상책임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	교통상해 간병비 질병시방 수술비용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현장위험 심사(실측)후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시 필요자료 : ◆각 건축물의 건축(증개축)년도 및 면적
◆각 보험목적물의 종류 및 수용장소
◆각 보험목적물의 구입년도 및 단가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203호
011-648-1203 | 010-9996-7700